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등 참석자들이 10일 인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대한민국 체육 100년을 기념하는 타임캡슐 매설식 제막을 하고 있다. 뉴시스

땀 서린 유니폼·미래에 쓴 손편지 ‘100년의 체육역사’를 타임캡슐에...

대한체육회 매설식...역사적 자료 220점 봉인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홍)가 10일 오후 3시 인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대한민국 체육 100년 기념, 타임캡슐 매설식’을 개최했다. 대한체육회는 창립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체육 100년을 맞아 지난 100년의 체육 역사를 상징하고 기념이 될 자료 220점을 선정해 타임캡슐에 봉인했다.

타임캡슐에 봉인된 물품은 조선체육회(대한체육회 전신) 창립일인 1920년 7월 13일부터 2020년 7월 13일까지 100년의 역사적 자료들이다. 역사적 상징성을 띄거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은 기록물(조선체육회 창립취지서, 대한민국 체육 100년사, 미래 100년 후대에게 보내는 손편지), 국가대표 선수들의 땀이 서려있는 국내외 경기대회 물품(2018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아경기대회 체조 여자 도마 금메달리스트 여서정 유니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하키 남북단일팀 올림픽 첫 골을 기록한 랜디 희수 그리핀 유니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컬링 여자 은메달 ‘팀킴’ 유니폼), 현 시대상을 알 수 있는 물품(국가대표 선수 식단, 대한체육회 직원 신분증, 직원 근무사진) 등이다.

매설식에는 2017~2018 시즌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유니폼을 기증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 의원(당시 총감독)을 비롯해 시도·회원종목단체 대표, 체조 국가대표 양학선·여서정 선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타임캡슐은 대한체육회 창립 200주년인 2120년 7월 13일에 개봉될 예정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철쭉 대신 단풍이...사상 첫 ‘11월 마스터스’ 내일 밤 개막 | 타이틀 방어 나선 우즈

6번째 그린재킷 입고 ‘3가지 기적’ 쏴까?

- 1 잭 니클라우스와 최다우승 동물
- 2 대회 첫 ‘두번째 마스터스 2연패’
- 3 ‘83승’ PGA 통산 최다승 신기록



‘명인 열전’ 제84회 마스터스 토너먼트(총상금 1150만 달러·128억 2000만 원)가 12일 밤(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파72)에서 개막한다.

첫 해인 1934년 3월에 열린 것을 제외하면 매년 4월에 개최됐던 마스터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사상 처음으로 11월에 펼쳐진다. 9월 US오픈에 이은 2020~2021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는 내년 4월에 다시 예정돼 있어 이번 시즌에는 두 번의 마스터스가 열리게 된다.

4월이 아닌 11월이라 기온도 떨어지고, 오거스타를 상징하는 명물인 진달래와 철쭉도 볼 수 없다. 평균 4만 명에 이르는 또 다른 상징 패트론도 코로나19 탓에 없다. 해가 짧아져 모든 선수들이 1번 홀에서 출발하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1번 홀과 10번 홀에서 오전, 오후 조로 나눠 경기한다.

그래도 마스터스는 세계 골프팬들을 가장 설레게 하는 빅 이벤트. 그 중심에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5·미국)가 있다. 극심한 부진과 부상 등 지독한 바



‘84회 마스터스 토너먼트’에 출전하는 타이거우즈가 9일(현지시간) 대회 장소인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진행한 연습 라운드 17번 홀에서 티샷을 날리고 있다. 마스터스 대회는 12일(한국시간) 밤 개막하는데, 타이거 우즈는 이번 대회에서 6번째 그린재킷(우승)을 노리고 있다. 이번에 우승하면 잭 니클라우스와 함께 공동 최다우승이 된다. 뉴시스

다를 경험하다 지난해 4월 이 대회에서 2005년 이후 14년 만에 5번째 그린재킷을 입으며 “스포츠 사상 가장 기적 같은 부활”이란 평가를 받았던 우즈는 지난해 최종 라운드 역전 우승의 기억을 되새기며 영광 재현을 노린다.

우즈가 만약 올해도 정상에 오르면 잭 니클라우스(미국)와 함께 마스터스 최다 우승(6회) 동물을 이루면서 마스터스 최초로 ‘2년 연속 우승’을 두 차례 달성하는 선수로 이름을 새기게 된다. 그동안 니클라우스(1965~1966년), 닉 팔도(잉글랜드·1989~1990년), 우즈

(2001~2002년) 등 마스터스 2년 연속 우승은 딱 3명 달성했다. 또 개인통산 83승을 수확하면서 2002년 사망한 전설 샘 스니드(미국·82승)를 넘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최다승 신기록이란 역사를 쓰게 된다.

최근 흐름만 보면 우즈의 새 역사 도전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 우즈는 이번 시즌 2개 대회에 출전해 US오픈에 선 컷 탈락하고,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나섰던 조조 챔피언십에선 공동 72위에 그쳤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우승할 수 있는 폭발력을 갖추고 있다. 우즈는

마스터스에 ‘올인’하기 위해 지난 주 열린 휴스턴 오픈에 불참한 채 일찌감치 오거스타에 집을 풀고 연습라운드를 갖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랭킹 1위 데스틴 존슨(미국), 2위 윤 램(스페인), 3위 저스틴 토마스(미국) 등 톱 랭커들과 함께 9월 US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브라이슨 디샴보(미국) 등 정상급 선수들이 모두 참가한다. 한국 선수로는 4번째 마스터스 무대에 서는 김시우(25)를 비롯해 임성재(23), 안병훈(29), 강성훈(33)이 출전한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다큐 영화’로 새 주가 올리는 BTS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 중동서 하루 평균 160회 이상 상영
‘브링 더 소울:더 무비’ 주말 황금시간대 일본지상파 점령도

그룹 방탄소년단이 이번엔 스크린에서 날아올랐다. 자신들의 다양한 공연 무대와 뒷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로 해외에서 새롭게 주가를 올리며 명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10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최근 다큐 영화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더 무비’를 세계 70개국에서 상영 중인 가운데 ‘브링 더 소

울:더 무비’로도 일본과 중동 등에서 새삼 인기를 모으고 있다. 또 한국영화 ‘오직 그대만’의 일본 리메이크작 주제가로도 팬덤을 과시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월드투어 모습을 담아 지난해 공개한 ‘브링 더 소울:더 무비’를 토요일이었던 10월24일 일본 지상파 방송사 TBS의 CS(위성)채널을 통해 선보였다. 주말 황금시간대에 방송해 화제를



‘브링 더 소울:더 무비’ 포스터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더 무비’를 중동지역에서 개봉해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세계 스타디움 투어에 얹힌 이야기를 그린 다큐 영화는 특히 10월15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봉해 하루 평균 160회 이상 상영되며 호평을

얻고 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지난해 10월 해외 가수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의 킹 파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공연한 소감을 영화로 밝히기도 했다.

일본영화 ‘너의 눈이 묻고 있어’로도 화제에 올랐다. 영화는 2011년 소지섭과 한효주가 주연한 멜로영화 ‘오직 그대만’의 리메이크작으로 방탄소년단은 주제를 불렀다. 10월23일 개봉한 영화는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주말 박스오피스에서 3위(렌트랙 집계)에 오르며 주제가 ‘유어 아이즈 텔(Your eyes tell)’로도 관객의 귀를 간질였다. 이에 방탄소년단은 영화 영상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음원을 배포하는 이벤트를 11일까지 펼치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버스정류장 앞, 지하철역 입구 앞 1+1KF 마스크자판기 운영자 모집!

350만원 소자본 창업! 수익 안날 시 창업비 환불!



자판기 사이즈 : 400 x 700 x 1640mm

마스크자판기 1대가 “2억짜리 오피스텔 월세보다 큰 수익!!”



주식회사 아롬(AROM) | 24시간 상담문의 | 1600-7022

www.btmask.com

본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80 호수공원 가로수길 1층 A동 139호